

mokpan, 한국디자인학회 논문집 게재 논문, w96, 1996년 1월 20일/ 1996년 5월 22일

〈심청전〉 목판체 연구¹⁾.

a study of 〈Shimch'ongjon〉 typeface

안상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ahn sang-soo (hong-ik univ., college of fine arts and design, visual communication dept.)

중심어: 한글 타이포그래피, 한글 글자꼴, 방각본 목판체

keyword: hangul typography, hangul typeface, bang'gak mokpan-che.

1) 이 논문은 1995학년도 홍익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논문 요약: <심청전 목판체>는 질박(質朴)·고졸(古拙)하며 간결하고 강한 맛을 내는 멋스러운 글자꼴이다. 특히 이 글자꼴은 조선후기 사대부 취향의 도서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서민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방각본 소설에 사용되었다. 이 글자꼴은 한글 창제 초기의 기하학적이고 원리적인 한글꼴이 붓이라는 필기도구의 영향을 거쳐 목판의 칼새김맛과 목판 인쇄 특성에 따라 서민적인 '허튼 꼴'로 정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청전 목판체>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납작한 형태로, 가로줄기·보가 가늘고 세로줄기·기둥이 두텁다. 그 자소 단위의 쪽자는 최대한도 허용된 자리를 차지하고 살리면서도 공간 이용에 짜임새가 있고, 단순하면서도 변화를 추구하는 형태적 특징을 갖는다.

● abstract: The typeface of the *Shimch'ongjon* woodblocks is unsophisticated and old-fashioned while at the same time having a tidiness and strength that give it its special appeal. This is the typeface used in publishing novels for sale to the common people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Choson Dynasty. Their demands could not be satisfied with most currently available literature, which was intended to suit the tastes of the official class. As a result of a development to overcome the unbalanced use of space characteristic of letterforms that followed the geometric principles of early Hangul, the typeface followed the refined, feminine "brushstroke" style of *kungch'e*, establishing itself as a "rough" face displaying the characteristics of carved, woodblock printing in answer to the needs of the common people who had the greatest need of Hangul during the time of its flowering. The *Shimch'ongjon* face is characterized by thin horizontal strokes, thick vertical strokes, and the appearance of being condensed left to right. They possess simple yet varied form. With these characteristics the *Shimch'ongjon* typeface, if revived and compared to other typefaces, has a beauty of structure and composition and a unique, modern image with excellent readability, giving it great significance for modern Hangul typography.

이 연구는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방각본(坊刻本)²⁾ 〈심청전〉 ‘보각을사본(補刻乙巳本)’(그림1)을 토대로 하여 만든 새로운 한글 글자꼴 ‘목판체’(그림2)에 대한 것이다. 필자의 〈목판체〉 개발 보기로 삼은 이 책은 원래 전주 ‘다가서포(多佳書舖)’에서 1905년에 간행된 것을 1916년 일부 보각(補刻)한 것이다. 방각본 소설 중 이 〈심청전〉의 글자꼴은 초기의 흘림체가 시간을 두고 다듬어진 것으로 방각소설에 쓰인 글자꼴 중 ‘고졸·질박함’ 속에서도 정연함이 돋보이는 서민적인 체취를 풍기는 발군(拔群)의 글자꼴이라 하겠다.

1. 서론

1.1. 〈방각본〉 목판체가 나오기까지 한글꼴의 발전

한글꼴이란 세종대왕이 최초로 한글을 창제할 당시, 한글의 창제 원리에 충실한 형태인 기하학적 형태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처음에는 글자꼴을 한문 필법을 응용하여 쓰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한글꼴은 필기 도구인 붓의 영향을 받아 차츰 발달하여 여성적이고 세련된 ‘궁체’, 또는 세련된 ‘오륜체’ 등으로까지 발전되었다. 그러나 〈심청전 목판체〉는 조선후기 사대부 취향의 도서(圖書)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서민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과 동시에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방각본 소설의 글자꼴로서, 시간을 두고 다듬어진 후기 글자꼴로 필자가 보기에 〈심청전 목판체〉의 특성은 그 ‘허튼 세련미’가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곧, 완판 〈심청전〉의 글자꼴은 한글 창제 초기의 기하학적 원리 원칙에 따른 공간의 불균형성을 극복하고 발전한 결과로, 요컨대 그 글자꼴은 붓맛을 따른 ‘궁체’로서 여성적이고 세련되게 발전된 것임과 동시에, 개화기 한글 수요자인 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칼새김맛과 목판과 물먹(水墨) 인쇄 특성에 따른 남도 특유의 ‘허튼 꼴’로 정착된 글자꼴이라 할 수 있다.

1.2. 방각본의 글자꼴

완판 방각본의 글자꼴에 대해서는 이미 류탁일 교수에 의해 연구된 바³⁾, 그의 논문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려 한다. 그는 완판 방각본의 글자꼴을 ‘초서, 행서, 해서’로 크게 나누고⁴⁾ 다음과 같이 아홉 가지로 분류하였다.⁵⁾(그림3)

2) 방각본은 조선 후기 민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한 도서로 조선 중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조선 후기에는 독자층의 증가로 방각본의 간행이 활발해졌다. 발행 장소에 따라서 경판(京板), 완판(完板), 안성판(安城板)으로 구분된다. 완판은 전주지방의 판본을 의미한다. 판본은 목판이 주류를 이루나 목활자본이나 토판본도 가끔 사용되었다. 방각본 서적 중 경판 안성판은 주로 아동 학습 교재를 출간하였고, 완판은 한글 소설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상업 출판시대의 터전을 마련한 것으로 신식 인쇄술이 보급되기 전까지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도서를 대중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중 필자가 표본으로 삼은 〈심청전〉은 방각본 소설로 분류되는데, 방각소설이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우리나라 서민층의 요구에 따라 소설이 판각(板刻)되어 영리에 민감한 상인층에서 당시 잘 읽히던 사본(寫本) 소설을 출판한 책을 일컫는다. 지방에서는 유독 전주에서만 방각소설이 간행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류탁일(1981). 《完板坊刻小説의 文獻學的 研究》(서울: 학문사), 72-80쪽.

4) 즉, 두 글자 또는 여러 글자들이 연자(連字)되어 쓰인 것을 초서로, 한 글자의 여러 획들이 서로 이어져 있으면서 다른 글자와 독립되어 있는 것을 행서, 한 글자 내에서의 줄기들이 하나 하나 또렷이 쓰여진 것을 해서로 보았다. ▷ 앞 글, 75쪽.

- ① 반초달필체(半草達筆體): <구운몽>(1862)
- ② 반초서민체(半草庶民體): <도웅전>(1857, 丁巳本), <홍길동전>(1857, 原刊本), <장풍운전>(1857, 原刊本).
- ③ 초서지향적(草書指向的) 행서(行書體): <별춘향전>, <도웅전>(戊戌本, 1898)
- ④ 행서체: 1870-1903 사이에 쓰임. <도웅전>(丁巳覆刻本, 癸卯本)
- ⑤ 행서지향적 해서체: 1900년 이후 나타남. <장풍운전>(原刊補刻板)
- ⑥ 중후횡박우견상향적(縱厚橫薄右肩上向的) 해서체: 세로줄기가 굵고 가로줄기가 가늘며 글자의 오른쪽 어깨가 올라간 것을 말함. 1905년 이후 많이 쓰임. <삼국지>, <소대성전>, <용문전>.
- ⑦ 중후횡박좌우평견적(縱厚橫薄左右平肩的) 해서체: 글자끝은 위와 같으나 가로줄기가 평행한 것을 말함. 단 같은 책 속에서 ⑥, ⑦의 글자끝이 같이 등장하는 예도 있다. <이대봉전>, <심청전>, <초한전>.

[그림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완판 방각소설의 한글꼴은 흘림체에서 정체로 변화하였다. 류교수는 이 시기를 1903년 <유충렬전>(壬寅本)을 기점으로 이전을 전기(前期), 그 이후를 후기(後期)로 구분해 놓았다. 필자가 이 글에서 보기로 삼은 필자 소장의 <심청전>은 류교수의 구분법에 따르면 후기 방각소설에 속한다.⁶⁾

2. <심청전> 목판 글자꼴의 특징

2.1. 글자 구조

<심청전> 글자꼴의 기본 구조는 기둥이나 세로줄기가 굵고 '보'나 가로줄기가 가는 해서체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투박하고 직선적인 특징이 가미되어 있다. 이 글자꼴의 특징은 우선 전체적인 면에서 ① 붓의 흐름과 나무판의 칼새김에서 기인된 맺음이나 돌기의 자연스럽고 독특한 형태와, ② 보·가로줄기가 기둥·세로줄기보다 가는 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받침 'ㄴ'자 등의 꺾이는 부분에서 보통 바탕체처럼 굴림이 없고, 각지게 처리되었다는 점이 이 글자꼴의 형태적 특성이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첫당소리글자, 홀소리글자, 받침이 매우 밀도 있게 어우러져 있다. 곧 첫당소리글자, 홀소리글자, 받침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중첩되어 글자 속공간을 적게 만들고 밀도를 높이

5) 앞 글, 75-77쪽, 요약.

6) '전기에 있어서 1850-1870년대까지 초서가 주로 쓰이었으며, 1880-1902년경에는 행서가 주로 쓰였고, 1902년 이후부터는 완판 특유의 중후횡박(從厚橫薄)의 해서체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완판 한글서체에 있어서도 초서와 해서 사이의 과도적 서체로 나타난 것이 행서체이다. 여기서 한 번 살피고 넘어 가야 할 것은, 어찌하여 완판방각소설의 서체가 초서→행서→해서로 변이 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는 일이다. 이것은 꼭 그렇다고 이야기하기에 실증될 근거가 희박하지만, 이는 완판소설 독자층의 성향변동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완판 방각본이 주로 초서로 쓰이어 보급되고 있었다는 점은 초서로 쓰인 것을 독자들이 능히 해독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의 독서는 여성층이었지만 완판의 독자는 주로 남성들이었다. 이 남성 독자들은 초기에는 대개 중인 서리층(胥吏層)이었으나, 후기로 오면서 그 서리 중인 독자층이 농민층으로 이동되었다. 이 들이 글자와 글자들이 연결된 초서를 구독(句讀)을 띄우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란 또박또박 쓴 해서보다는 읽기가 힘들었을 것이니, 판로를 더 많이 개척해야 할 간행자 편에서나 사서 읽어야 할 독자 편에서 서로 득(得)이 있는 현실적 요구가 읽기 쉬운 해서체로 책을 만든 것이라고 본다.' ▷ 앞 글, 77쪽.

기 때문에 <심청전> 목판체는 실제 다른 글자꼴에 비해 커 보인다.

2.2. <심청전> 목판체의 형태적 특징

<심청전> 목판체에서 찾아낸 형태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곧,

① 목판체의 형태적 특징은 고전적·서민적·남성적 이미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② 목판 재료와 필기도구인 붓 맛이 잘 살아있다. 곧, 붓에 의한 유연한 형태, 나무와 조각도에 의한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선의 느낌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무쌍하면서도 간결한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③ ‘ㅇ, ㅎ’의 형태가 직선적인 세모꼴 형태로 되어있다. [그림7, 9]

④ 흘림체가 부분적으로 쓰였다. 예를 들어 ‘ㅅ, ㅈ, ㅊ’이 ‘ㄱ, ㅋ, ㆁ’와 같이 쓰일 경우가 그러하다.

⑤ 줄기의 운동감(動勢)이 매우 커 역동적인 분위기를 지닌다.

⑥ 기둥과 세로줄기가 보나 가로줄기에 비해 굵다. [그림5]

⑦ 보는 오른쪽으로 6-7도 비스듬히 올라가 있다.

2.3. 비례

<심청전 목판체> 낱글자의 전체 비례는 가로가 세로보다 크다.⁷⁾ 이렇게 <목판체>의 가로가 세로보다 큰 것은 정해진 공간 내에 가급적 뾰뾰하게 써야 하는 세로쓰기의 경제적인 영향이라고 짐작되며, 오히려 이러한 납작한 글자꼴은 세로쓰기에서 형태적 안정감을 이루고 있다.

3. <심청전> 글자꼴 자소 형태 분석

3.1. 기본 줄기: 보·가로줄기, 기둥·세로줄기

① 굵기: 세로줄기가 가로줄기보다 굵고, 기둥이 보에 비해 현저하게 굵다. ▶이것은 세로쓰기에서 독서의 흐름에 도움을 주어 가독성을 높이는 요인을 제공하며, 세로줄기가 굵음에 따른 형태적 리듬을 창출하고, 힘찬 조형미가 강조된다.

② 길이: 가로줄기에 비해 세로줄기가 길고, 보가 기둥보다 길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전체적으로 납작한 형태를 이루는 요인을 제공하며, 세로쓰기에서 독서의 흐름에 도움을 주어 가독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③ 세로쓰기에서 기둥의 왼쪽 선이 글자 흐름의 무게 기준선이 되고 있으며, 기둥 왼쪽 면은 수직으로, 기둥 오른쪽 면은 기둥머리에서부터 약 7도의 각도로 내려 흐른다. ▶이는 독서할 때 시선을 아래로 유도하는 효과와 조밀한 글자사이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림5]

④ 가로줄기와 보는 오른쪽으로 올라갔다. 이는 손글씨의 자연스럽게 동적인 느낌을 그대로 살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은 이 글자꼴을 경쾌하고 발랄하게 보이게 한다.

⑤ 보에서 운필의 영향으로 기필(起筆) 지점의 첫돌기와 수필(收筆) 부위의 맺음돌기가 굵게 되

7)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로:세로의 비율은 ‘엇’자의 경우 3.902:3.788로 가로가 세로에 비해 103% 정도 되고, ‘난’자의 경우 4.774:3.901로 가로가 122% 정도 넓다.

어 있고, 가운데 부분은 약간 가늘어 긴장감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⑥ 가로줄기들끼리와 보는 평행을 이룬다.

⑦ 이음보·이음줄기·기둥의 끝은 날카롭게 마무리되어 있다. 이는 글자가 강하고 예리하게 보이게 만든다.

3.2. 홀소리글자

① 대체로 기둥의 길이가 짧은 편이다.

② 세로홀소리글자 ‘ㅏ, ㅑ, ㅓ, ㅕ’ 등에서 결줄기 길이가 글자 전체 비례에 비해 길다. 특히 ‘ㅓ, ㅕ’ 등의 결줄기 길이가 길다. ▶이는 글자의 변별력을 높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③ ‘ㅓ, ㅕ’의 경우 윗결줄기와 아래결줄기의 간격이 넓어, 글자 속공간을 넓게 하여 글자의 변별력을 높이고 시원한 느낌을 주게 한다. 또한 결줄기는 대개 기둥의 윗부분에 위치하여, 닿소리글자와 연결되어 글자의 결구(結構)를 단단히 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친 기둥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가로홀소리글자 ‘ㅗ, ㅛ, ㅜ, ㅠ, ㅡ’의 보가 6-7도 정도 비스듬하게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다. (물론 개중에는 평행한 것도 섞여있긴 하다)(그림5)

⑤ 홀소리글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커서 쪽자의 고유 형태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

⑥ ‘ㅗ, ㅛ, ㅓ, ㅕ’ 등이 닿소리글자 뒤에 올 경우 대개 그 닿소리글자와 붙여쓴다.

3.3. 닿소리글자

① 닿소리글자는 가로로 긴 직사각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가로모임 민글자에서 ‘ㅅ, ㅈ, ㅊ’류는 세로로 길다.

② ㅅ, ㅈ, ㅊ 계열: 빗침과 내림이 만나 이루는 각도가 다양하며, <심청전> 글자꼴의 두드러진 형태적 특징을 이룬다.(그림6)

▶ ‘ㅏ, ㅑ, ㅓ, ㅕ, ㅗ’ 등 세로홀소리글자와 쓰일 때: 삐침과 내림이 수직에 가까운 예각이나 평행을 이루며, 밑으로 쭉 내려서 흘림체의 멋을 부린다.

▶ 가로홀소리글자 ‘ㅗ’와 같이 쓰일 때: 삐침과 내림이 벌어져 둔각을 이룬다.

▶ 가로홀소리글자 ‘ㅜ, ㅡ’와 쓰일 때: 삐침과 내림이 위의 예보다 더 벌어져 180도에 가까운 둔각을 이룬다.

▶ ‘ㅓ, ㅕ’와 쓰일 때: 흘림체로 쓰며 대개 홀소리글자와 붙여쓴다.

③ ㅇ(이음): 방각 목판체의 가장 큰 특징에 속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세모꼴의 형태를 띠며 직선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둔각 세모꼴 형태로 줄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굽어지며, 상투가 없다. 이는 서민적인 ‘허튼’ 필법과 더욱이 칼새김에 용이함에 기인한 형태로 보며, 글자의 변별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목판체의 뽀족한 끝과도 어울리는 형태로 작용한다.(그림7)

④ ㄴ(니은): 세로줄기 보다 가로줄기의 길이가 길고 납작하다. 가로모임글자나 섞임모임글자의 받침으로 쓰일 때는 수직방향의 홀소리글자를 수평으로 막아 홀소리글자 기준선 밖까지 뻗쳐 ‘ㄴ’ 고유의 쪽자 맛을 충분히 살리고 있다.(그림8)

⑤ ㅎ, ㅈ: 꼭지점의 형태가 누운 꼭지점과 선 꼭지점 두 가지 형태로 섞여 쓰이고 있다.(그림4)

3.4. 받침

① 받침 'ㄴ'의 독특한 처리가 이 글자꼴의 특징이다. 글자 '전, 천'의 경우 받침 'ㄴ'의 세로줄기는 일부러 길게 내려쓴 'ㅈ'과 'ㅋ'의 사이공간을 파고들어 글자의 공간 배분을 교묘히 활용하여 멋을 더하고 있고, '륜'의 경우 'ㅠ'의 두 기둥 사이를 파고드는 것도 같은 예이다.(그림8)

② 대개의 받침은 앞에 오는 홀소리글자와 이어 붙여 써 공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글자 결구(結構)를 단단히 하는 효과도 동시에 갖는다. 'ㅅ'은 대개 예외이다.

4. 결론

〈심청전〉 목판체는 대범하면서도 고졸(古拙)·질박(質朴)하며, 남성적이고 서민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특징을 가진 멋스런 글자꼴이다. 특히 이 글자꼴은 조선후기 사대부 취향의 도서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서민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방각본 소설의 글자꼴이다. 이것은 한글 창제 초기의 기하학적 원리 원칙에 따른 공간의 불균형성을 극복하고 발전한 결과로, 그 글자꼴이 붓맛을 따라 '궁체'로 여성적이고 세련되게 발전된 것이, 개화기 한글 수요자인 서민들의 요구와 칼새김맛과 나무 인쇄 특성에 따라 '허튼 꼴'로 정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청전〉 목판체의 가장 우수한 점은 각 요소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켰으면서도 전체적인 통일감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가로줄기·보가 가늘고 세로줄기·기둥이 두텁고, 좌우로 약간 납작하다. 자소 단위의 쪽자는 최대한도 허용된 자리를 차지하고 고유 형태의 느낌은 충분히 살리면서도 공간 이용에 짜임새가 있고, 단순하면서도 변화를 추구하는 형태적 특징을 갖는다. 또한 글자 속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글자꼴 때문에 가독성이 매우 뛰어나고 보기에 시원한 장점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쇄 상태에서 먹색이 정연하고 종이와 나무라는 판각 재료의 조화로 글자의 번짐이 투박하면서도 은은하다. 가로쓰기에도 시선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심청전〉 목판체를 현대 디자인 감각에 맞게 되살려 우리 디자인계의 인프라로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각문화 유산을 풍부히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목판체〉는 현대의 다른 글자꼴과 비교해도 그 조형미와 공간 활용, 가독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독특한 현대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 현대 한글 타이포그래피에서 〈목판체〉의 복고적인 이미지는 고전적 이미지의 쓰임새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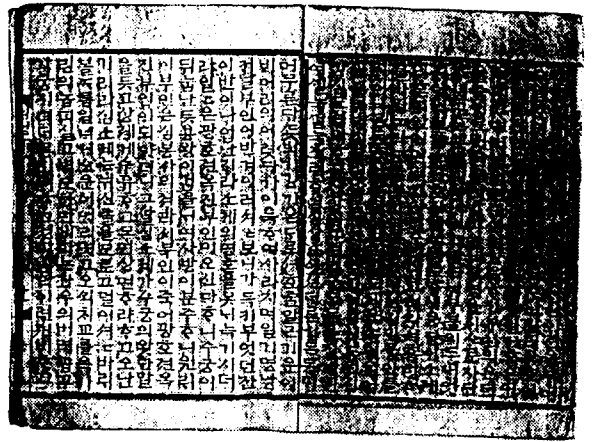
강계숙. 《심청전 이본의 변모양상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김두중. 《한국 고인쇄 기술사》 탐구당. 1974.

———. 《한국 고인쇄 문화사》 삼성미술문화재단. 1980.

- 김진평 외. 《한글 글자꼴 기초연구》 한국출판연구소. 1990.
- 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 손보기. 《새판, 한국의 고활자》 보진재. 1987.
- . 《금속활자와 인쇄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 안춘근. 《한국서지의 발전과정》 범우사. 1994.
- 유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 이영현. 《방각본소설 이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 범우사. 1993.
- . 《한국 고인쇄사》 한국도서관학연구회. 1976.
- 최문화. 《방각본 심청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6.
- 최현배. 《고친 한글갈》 정음문화사. 1982.
- 한국고서동우회. 《고서연구》 제5호. 1988.
- 한국서지학회. 《월간서지학보》 1994.9. 제13호.
- 한국인쇄대감편찬위원회. 《한국인쇄대감》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 1969.

<그림 1>. 방각소설 <십정전>(보각을사본) 펼침쪽.



| | | | | | | | | | | |
|---|---|---|---|---|---|---|---|---|----|---|
| 가 | 각 | 간 | 개 | 거 | 것 | 경 | 고 | 공 | 관 | 교 |
| 구 | 국 | 권 | 규 | 그 | 길 | 꽃 | 나 | 낙 | 낮 | 내 |
| 년 | 녕 | 네 | 노 | 녹 | 는 | 니 | 다 | 대 | दै | 덕 |
| 도 | 독 | 동 | 되 | 두 | 든 | 들 | 등 | 따 | 라 | 래 |
| 러 | 려 | 런 | 로 | 룽 | 르 | 리 | 립 | 마 | 막 | 만 |
| 메 | 면 | 명 | 모 | 목 | 무 | 문 | 미 | 민 | 민 | 바 |
| 박 | 발 | 배 | 백 | 번 | 법 | 병 | 보 | 본 | 봉 | 부 |
| 분 | 불 | 비 | 사 | 산 | 살 | 생 | 서 | 섭 | 성 | 세 |
| 소 | 송 | 수 | 숙 | 스 | 승 | 시 | 써 | 아 | 암 | 애 |
| 양 | 어 | 엄 | 예 | 소 | 속 | 와 | 요 | 우 | 윈 | 유 |
| 스 | 을 | 이 | 자 | 작 | 캐 | 컹 | 케 | 조 | 중 | 주 |
| 준 | 중 | 지 | 진 | 집 | 찬 | 찰 | 창 | 처 | 천 | 칭 |
| 체 | 찰 | 최 | 추 | 춘 | 출 | 충 | 크 | 큰 | 터 | 태 |
| 토 | 특 | 틸 | 편 | 품 | 하 | 찬 | 해 | 행 | 허 | 협 |
| 혜 | 호 | 출 | 화 | 환 | 획 | 효 | 훈 | 흐 | 흥 | 희 |

<그림 2>. <목판체>. 안상수© 1993.

<그림 3>. 완판 방각본 소설의 글자꼴 비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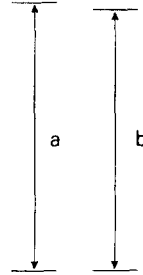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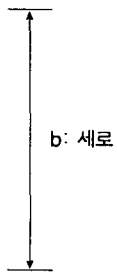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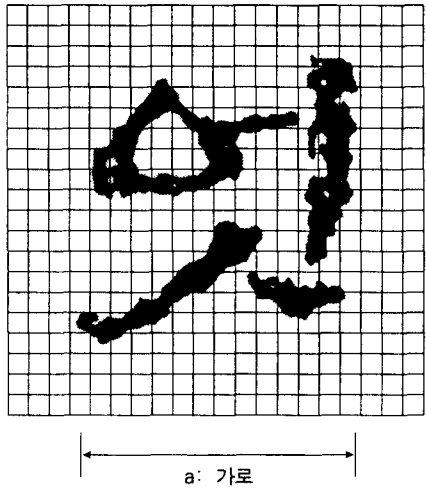
(류탁일, 앞의 책, 79-80쪽에서 인용)

| | | |
|---|---|--|
| <p>(1) 華文體</p> <p>사설은... (text in traditional Chinese style)</p> | <p>(2) 半紙體</p> <p>사설은... (text in semi-paper style)</p> | <p>(5) 行體傾向의 楷體</p> <p>사설은... (text showing a trend towards cursive style)</p> |
| <p>(3) 草體傾向의 行體</p> <p>다정덕을... (text showing a trend towards cursive style)</p> | <p>(4) 行體</p> <p>다정덕을... (text in cursive style)</p> | <p>(6) 嚴厚精神石上肉의 楷體</p> <p>되성은... (text in a formal, thick style)</p> |
| <p>(4) 行體</p> <p>다정덕을... (text in cursive style)</p> | <p>(4) 行體</p> <p>다정덕을... (text in cursive style)</p> | <p>(7) 嚴厚精神石上肉의 楷體</p> <p>다정덕을... (text in a formal, thick style)</p> |

아어허간 ~ 님살이야표
 화성흥옛날야은하유증
 야남전복갑잔만호들이
 어더수들이여셔더반가
 겨노야이러타시겜기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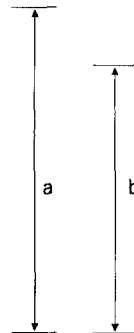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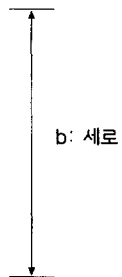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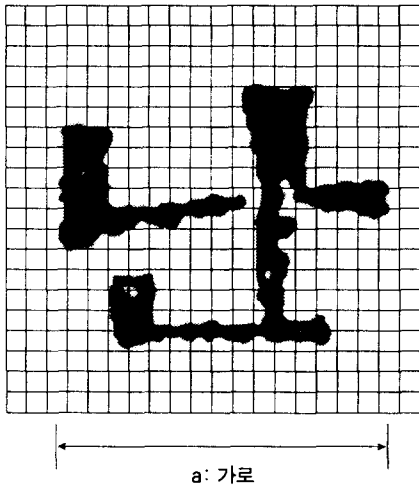
심청전

<그림 4>. <심청전 목판체>의 가로·세로 비례.



$$\begin{aligned} \text{가로:세로} &= 3.902:3.788 \\ &= 103:100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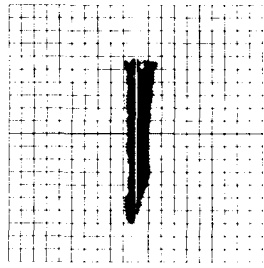
'엇'이 이루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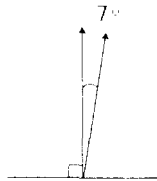
$$\begin{aligned} \text{가로:세로} &= 4.774:3.901 \\ &= 122:100 \end{aligned}$$

'난'이 이루는 공간

〈그림 5〉. 기둥과 보의 기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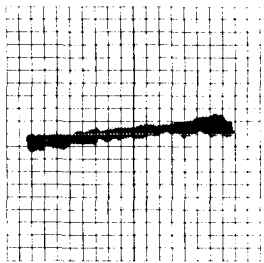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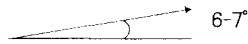


기둥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

- 기둥의 경우, 기둥의 왼쪽은 수직으로 오른쪽은 왼쪽을 향해 7° 정도의 각을 이루며 내려온다. 이 때 세로쓰기의 기준선은 왼쪽이 된다.



보



보가 수평선과 이루는 각

- 보는 6°에서 7°정도 오른쪽으로 치솟아 있다. 돌음체의 전반적인 특징으로서 기둥과 조화를 이루는 구실을 한다.

자 장 질 중
 천 절 제 착
 초 침 춘 천
 치 체 삼 신
 슈 소 셔 듯

| | 세로흘자 | 가로흘자 'ㄱ' | 세로흘자 'ㄴ' | 세로흘자 'ㄷ, ㄹ' |
|-----|------|-------------|-------------|----------------|
| 'ㅅ' | 人 | ㄴ | ㄴ | ㄷ |
| 'ㅈ' | ㅅ | ㅈ | ㅈ | ㅊ |
| 'ㅊ' | ㅊ | ㅊ | ㅊ | ㅊ |

〈흘소리 글자의 변화에 따른 첫 당소리 글자 'ㅅ, ㅈ, ㅊ'의 변화 비교〉

〈첫 당소리 글자 'ㅅ, ㅈ, ㅊ'의 예〉

〈그림 6〉. 흘소리 글자와 받침 당소리 글자의 변화에 따른 'ㅅ, ㅈ, ㅊ'의 형태 변화.

<그림 7>. 홀소리 글자와 받침 당소리 글자의 변화에 따른 'ㅇ'의 다양한 형태 변화.

| | 'ㅏ' | 'ㅑ' | 'ㅓ' | 'ㅕ' | 'ㅗ' | 받침'ㅇ' |
|-----|-----|-----|-----|-----|-----|-------|
| 'ㅇ' | ㅗ | ㅑ | ㅓ | ㅕ | ㅗ | ㅗ |

<홀소리 글자의 변화에 따른 'ㅇ'의 변화 비교>

안 어 업 여 오 온
 쇼 용 왕 우 술 으
 슌 이 일 의 몽 정

<'ㅇ'의 다양한 모양>

<그림 8>. 받침 'ㄴ'의 형태 비교.

전 천 룬 ㄴ 전 ㄴ 룬

바탕체의 받침'ㄴ'

심청전 목판체의 받침'ㄴ'

<그림 9>. 'ㅎ'의 여러가지 형태.

ㅎ 현 효 혼 화 황